

나이드라지드에 관한 슬픈 기억

손신대 * 라미아 보건개발연구원

나라마다 그 나름의 최고 명품이 있
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영국-위스키, 독일-자동차,
프랑스-포도주, 브라질-커피, 일본-전자
제품 등 그 분야에서 최고인 명품이 있다.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으로 한 중국인
에게 한국 상품 중 어떤 것이 제일 유명
하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대답은
너무나 나를 당황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
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있게 "선풍기"라
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소 자존심이 상했
지만 나타낼 처지가 아니어서, 한국은 자
동차와 전자제품 등이 세계일류와 경쟁
할 정도인데 왜 "선풍기"라고 생각하느
냐고 물어 보았다. 그의 설명을 듣고는
그의 의견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선진국에서는 공조기만 생
산하지 팔리지 않는 선풍기는 만들지 않
으며, 선풍기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 중
한국이 공업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이
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국산 선풍기가 가
장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제일 고가라



지난 3월
일복십자
상공로! 후
수상소감
을! 있는
자.

는 설명이었다. 그후 우연한 기회에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결핵관리를 이해하
는데 필요한 비유인 것 같아 선풍기 이야
기를 늘어놓았다. 오늘의 결핵관리는 한
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은 결핵이 거의 없어서 결핵
환자를 진료해 본 경험이 없는 의사가 대
부분인 형편이고, 결핵환자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은 의료시스템이나 의료기
술 수준이 열악한 상태이다. 다시말하면
우리 나라는 결핵환자도 적당히 있고, 의
료수준도 높은 나라이다. 이는 우리의 결
핵관리수준이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인
셈이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이런 상황은
변할 것이다.

우리 나라 결핵은 문헌상 기록은 오래
됐지만 우리 생활사에서 찾기는 쉽지 않
으며, 춘원 이광수의 소설 「흙」이나 「유
정」, 「무정」 등에서 슬픈 종말이나 불행한
사건의 묘사로 주인공의 결핵이환, 죽음,
피를 토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사회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결핵관리도 혼란과 미로를 거쳤다고 기억된다. 정부의 국가보건 사업은 국민학교(초등학교) 아동에게 탈지우유 배급과 가루 DDT를 분무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미군정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예방접종이나 구호사업도 잉여농산물의 밀가루와 구호물자인 피복을 배급하는 정도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급성전염병인 호열자(콜레라)의 만연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보건사업의 주였으며, 결핵이나 나병에 대한 관리는 무관심했었다고 기억된다.

한편 한국동란 이전까지 우리 나라는 농경사회의 주거형태로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재해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인적교류가 빈번하지 않았으므로, 결핵은 전파경로가 주로 가족간의 전염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확산속도는 매우 완만했었다. 이런 연유로 당시 결핵은 가족소인의 질병 내지 유전병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되고 있어서 혼사를 할 경우 가족력에서 결핵집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풍습이 있을 정도였다.

우리 나라에 현대적 결핵치료제 등장은 주둔 미군들의 군수의약품에 파스, 아이나, 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되면서부터이고, 이러한 군수의약품은 암시장을 통해서 유출되었는데, 당시 결핵 치료약을 구하기는 아주 어려웠고 그 가

격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가였다.

당시 쌀 한가마(60kg)의 가격과 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한 병(vial) 가격이 같았으니, 요즘 시장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20만원 정도가 된다. 또한 나이드라지드(아이나) 한 병(100정)과 소 한마리 가격이 같았다는 것을 필자는 기억한다. 삼촌의 결핵치료를 위해 할머니의 용दान으로 소 한마리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한 병의 나이드라지드를 구하는 심부름을 한 기억이 있다(본인에게는 매우 슬픈 기억이지만).

그 시절 결핵약은 오늘날로 보면 오래된 산삼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었고, 그나마 구할 수 있으면 운이 좋은 경우였다. 암거래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번 기회가 오면 형편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해야 했었다.

이러한 결핵치료약의 희귀함 때문에 당시 마이신은 요즘 병보다 훨씬 큰(50cc정도) 포장으로 증류수 30cc를 섞어서 하루에 2cc씩 두 번 엉덩이 주사를 맞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병으로 여러 명의 환자(친지나 가족)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이때는 시주하는 의사들도 용량에 관한 지식보다는 약효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였다. 사용한 마이신 빈 병은 매우 요긴한 생활용품(잉크병이나 화장품 용기 등)으로 귀한 선물로 유통되기도 했었다. 卍 (다음호에 계속)

